



쌀쌀한 가을, 햇볕이 반가워요

쌀쌀한 바람이 부는 등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인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교정으로 나들이를 온 어린이들이 따스한 햇볕 아래서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교정으로 나들이를 온 어린이들이 따스한 햇볕 아래서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한은, 또 '빅 스텝' 기준금리 3% 시대

0.5%포인트 추가 인상 예고

한국은행이 12일 국내 기준금리가 한 번에 0.5%포인트 오르는 '빅 스텝'을 단행하면서 10년 만에 '3%대 기준금리' 시대가 열렸다.

〈관련기사 9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3%로 오른 건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인상은 올해 들어 4월·5월·7월·8월에 이은 다섯 차례 연속으로, 역대 한은 최초 기록이다.

한은이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역대 두 번째 '빅 스텝'에 나선 건 연간 상승률 6%를 눈앞에 둔 물가를 잡기 위해서다.

강도 높은 긴축 통화정책을 벌여 인플레이션을 막자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 확대와 이에 따른 환율·물가의 추가 상승 위험도 빅 스텝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다음 달 초 미 연방준비제도가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미국과 격차는 0.75~1.00%포인트로 곧 다시 벌어질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종 기준금리가 연 3.50%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대해 "다수 위원이 말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내년 초까지 0.50%포인트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외 자본 수도권 몰려... 지방 투자 인센티브 시급

지방도 '빈익빈 부익부' 광주·전남·전북 전체의 1.1% 그쳐
균형발전 위한 균특회계마저 수도권 배분... 전면 쇠신해야

해외·민간 자본이 인구, 경제 기반이 쏠려 있는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집행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가 수도권에도 분배되고 있는 등 국가 재정마저 불균형 발전을 더 가속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민간투자가 지방으로 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국가 재정 배분 기준을 쇠락지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등에서 입수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1234억

38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64.4%(795억4500만 달러)가 몰렸다. 서울이 550억2700만 달러(44.6%)로 상당부분을 가져갔으며, 인천 145억6400만 달러(11.8%), 경기 99억5200만 달러(8.0%) 등의 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은 5년간 고작 13억1300만 달러(1.1%)를 유치하는데 그쳤다. 광주는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1억2500만 달러, 전남·전북 역시도 단위에서 하위권인 7억7200만 달러와 4억 16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수도권의 60분의 1 수준이다.

지역 간 격차도 컸다. 부산·울산·경남 69억3500만 달러, 대구·경북 24억500만 달러를 합쳐 영남

권은 93억4000만 달러(7.6%)의 투자를 받아 호남권에 비해 7배 이상 많았다.

이같은 격차는 10개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서도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인천이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46.20억 달러의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한 반면 광양만권은 6.68억 달러, 지난 2021년 초 출범한 광주는 아직 실적이 없었다.

해외·민간 투자의 절반 이상을 독식한 수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취지로 도입된 균특회계까지 챙겨갔다.

2020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집행된 균특회계 규모는 모두 24조4744억원이었으며 광주는 1200억여원, 전남 1473억여원, 전북 2723억여원 등이 배정됐다. 광주는 인천(1198억여원), 대구(1134억여원), 울산(1001억여원), 대전(796억여원)보다는 더 받았지만, 부산(1249억여원)보다는 적었다. 전남은 전북과 함께 경남(2313억

원), 경북(2260억여원), 충남(2218억여원), 충북(1525억여원)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았다. 특히 균형발전 취지로 균특회계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도 1198억여원이 투입되기도 했다.

이용빈 의원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경우 압도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균형발전특별회계상에도 수도권에 지원을 하고 있다"며 "수도권은 주어진 균특예산을 전액 사용하는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은 공모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지방비까지 매칭, 균특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고약한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전면으로 걸었지만, 지역 소외를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을 위한 파격적 대책과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지역경제는 더욱 급속도로 수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18 기록관, 광주일보 기록물 전산화 한다 ▶2면

하남부영3차, 사라진 12억 수선충당금 ▶6면



KIA 가을 호랑이 '와일드카드' 뒤집기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